

‘금남최선생 표해록’ 광주박물관으로

15세기 나주 출신 최부가 쓴 ‘조선의 중국견문록’

1954년 나주 목활자본 5권, 13세손 최인범 선생 기증

‘표해록’은 15세기의 조선인 금남(錦南) 최부(1454~1504)가 당시 중국 경제문화의 선진지대인 강남을 견문하고 남긴 기록이다. 최부는 물산, 산업, 화폐, 주택, 음식, 복식, 풍속, 산천, 교통, 무기 등을 두루 관찰한 점에서 여느 여행록과 구별된다.

특히 최부는 항주로부터 북경에 이르는 대운하의 모든 구간을 주행한 최초의 조선인으로, 대운하 운용에 대해 동시대 중국인 기록보다 상세한 기록을 남겼다는 사실을 중국학자들도 인정하고 있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김승희)은 나주 출신 최부의 ‘표해록’을 13세손 최인범 선생으로부터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증받은 문화재는 ‘금남최선생 표해록’을 비롯해 ‘금남최선생문집’ 등 5권

5점이다.

최부가 처음 쓴 ‘표해록’ 초고는 ‘중조 견문일기(中朝見聞日記)’라는 제목이 었다. 그러나 ‘금남표해록(錦南漂海錄)’으로 문집에 오르면서 ‘표해록’으로 지칭됐다.

이 책은 3권 21책으로 구성돼 있는데 중종 때 처음 간행된 초간본 이후 몇 차례 목판과 재간행을 거쳤다.

이후 1896년(고종 33) 강진의 후손에 의해 목활자본으로 간행됐다. 이를 ‘화산 문고본(華山文庫本)’이라고 부른다.

마지막으로 1954년 나주에서 다시 목활자본으로 문집 5권이 발간됐으며, 바로 이 책이 이번에 광주박물관에 기증됐다.

최부의 본관은 탐진(지금의 강진)이며, 나주에서 태어나고 자라 호를 금성의



금남최선생문집과 표해록

남쪽을 뜻하는 금남(錦南)으로 삼았다. 도망친 노비를 잡아들이는 추세경자관으로 임명돼 제주에서 근무하다가, 고향으로 가던 중 추자도에서 풍랑을 만나 명나

라태주부 임해현(지금의 절강성) 해안에 닿았다.

6개월 동안 온갖 시련을 겪은 뒤 조선으로 돌아온 최부는 중국에서 경험한 견문을 기술했다. ‘표해록’에는 부친상의 소식을 듣고 귀향하는 과정에서 남중국으로 표류한 사실, 조선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자세하게 묘사돼 있다.

한편 표해록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기도 했다. 1769년(영조 45) 일본의 주자학자 기요타 기미카네는 ‘당토행정기(唐土行程記)’라는 이름으로 출간했으며, 26년이 지난 후 ‘통속표해록(通俗漂海錄)’으로 다시 출간했다. 또한 한글 언해본이 발간되기도 했으며 20세기에 이르러 여러 종의 번역본이 나왔다.

한편 김승희 광주박물관 관장은 “‘표해록’은 15세기 남중국의 상황을 생생하게 서술했다는 점에서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 버금가는 귀중한 조선의 중국견문록”이라고 평가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전남 참모습 ‘학향·의향·예향의 실상’

안종일·정진백 ‘정의로운 역사 멋스러운 문화’ 출간

“역사는 기록자의 마음을 통하여 항상 굴곡된다. 주류 역사가가 관심을 두지 않은 과거의 기억은 역사책에서 생략된다. 광주·전남의 역사가 ‘망각으로서의 역사’로 우리 민족사에 제대로 기록되지 못하는 이유다. 지난해 전라도 정도(定道) 천년을 맞이하였으나 지배 세력이 조작·기술해 놓은 왜곡된 광주·전남의 상(像)을 극복하지 못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더구나 속성(速成) 정보를 좇는 데 길들여져 토사를 탐독하고 역사를 통찰하는 힘이 갈수록 결여되는 시대다.”

광주·전남의 역사와 문화를 개괄한 ‘정의로운 역사 멋스러운 문화’ (사회문화원·사진)가 출간됐다.

책은 광주시 초대교육감을 역임한 안종일 전남대 총동창회 고문과 출판을 통해 사회문화운동에 진력하고 있는 정진백 아시아문화 발행인이 엮었다. 함평 출생인 두 역언어는 이번 책에서 ‘학향, 의향, 예향의 실상’을 담았다. 한마디로 ‘새로 쓰는 광주·전남의 참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책은 광주·전남 사회가 이룩한 역사적 성과와 멋스러운 문화적 업적을 정리하고 체계화 하는데 초점을 뒀다. 이를 토대로 역사 문화 교육의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



문제인식에서 출발한다.

책은 모두 8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은 지역민들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내온 역사와 사회, 문화 전반을 개괄했다. 2장에는 선사시대부터 조선후기 사회까지를 시대 순으로 검토한 글과 사상사적 논문들이 포함돼 있다. 3장과 4장은 각각 학문·문화·예술에 대한 ‘시간적 접촉’, ‘동학’ 등 민운동과 항일의병 전쟁’을 다룬다.

5장에는 일제 식민 통치와 민족운동이 기술돼 있다. 광주와 전남 지역민들의 저항을 그린 혈사(血史)에 다음 아니다. 6장과 7장은 해방과 분단, 민주화의 길을 주제로 기술돼 있다. 마지막으로 8장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조국의 현실과 민족의 미래에 대한 향념을 담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노무현, 만남의 기억’ 사진으로 추억하다 20일부터 담양담빛예술창고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사진전이 열린다.

(재)담양군문화재단 담빛예술창고(관장 장현우)는 사진전문지 포토닷(디렉터 박이찬)과 공동 기획으로 ‘노무현, 만남의 기억’전을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최한다.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사진 작가 최광호가 앵글에 담아낸 노대통령의 모습들이다. 최 작가는 노무현 대통령과의 세 번의 우연한 만남을 사진으로 기록했고

이번에 4개의 섹션으로 나눠 작품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작을 통해 최 작가는 대상과 만남 안에서 시각적 표현을 통해 기억을 추억한다.

일반적으로 첫 만남은 짧은 시간 안에서 상대를 이해하며, 특히 대상의 눈빛과 표정에서 스토리를 찾아낸다.

또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또 다른 이미징을 찾아내곤 하는데 최 작가는 노무현 대통령과의 첫번째 만남의 대화를

기억하며 작업에 임했다. 최 작가는 노대통령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대로 담아내기 보다는 자신의 시각을 반영해 또 다른 작품으로 만들어냈다.

최 작가는 오사카예술대학교에서 사진학을 공부했으며 2002년 제1회 동감사진상 국내작가상 부문에서 수상하고 1999년 제3회 일본 도쿄 국제사진비엔날레 교세라상을 받았다. 전시 개막 행사 22일 오후 4시.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정의를 위한 사투 ‘뼈 아픈 진실’

광주여성재단, 젠더영화상영회...20일 독립영화관

광주여성재단이 오는 20일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젠더영화상영회를 개최한다. 이번 영화상영회는 올해 ‘젠더아카데미’ 마지막 시간으로 여성인권영화제 상영작이었던 영화 ‘뼈 아픈 진실’(감독 카디아 매코이어, 에이프릴 헤이스·사진)을 만난다.

‘젠더아카데미’는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젠더 감수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젠더 영화 상영 외에도 ‘데이트 폭력’, ‘문학 속 페미니즘’, ‘탈코르셋’, ‘성인지 관점의 도시건축공간’ 등을 주제로 페미니즘 세미나를 진행했다.

9년에 걸쳐 촬영된 ‘뼈아픈 진실’은 정

의를 찾기 위한 사투를 다룬 연대기이자, 사회가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모습, 그리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세대에 걸쳐 주는 아픔을 조명한 작품이다.

1999년 콜로라도, 제시카의 어린 세 딸이 별거 중이던 남편에 의해 납치되어 살해당했다. 그녀는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던 남편을 강력히 제지하지 않은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싸움을 시작한다.

상영회 진행은 송관희 여성인권영화제 수석프로그램매거가 맡는다. 무료관람.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김선정 광주비엔날레 대표 아트리뷰 ‘파워 100’ 선정

김선정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가 올해도 영국 현대 미술 잡지 ‘아트리뷰’ 선정 ‘파워 100’에 이름을 올렸다. 아트리뷰는 2002년부터 큐레이터, 비평가 등으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매년 가장 영향력 있는 미술계 인사 100명을 선정하고 있다.

김 대표이사의 올해 순위는 77위로 지난해 66위에 비해 다소 하락했다. 이번 ‘파워 100’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이는 설치미술가 양혜규로 올해는 36위(지난해 76위)에 이름을 올렸다. 역대 한국인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양혜규는 현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82위) 등이 ‘파워 100’ 순위에 올랐다

한편 올해 순위에서는 최근 재개관한 뉴욕현대미술관(MoMA) 클렌 로리 관장이 1위에 선정됐으며 미국 유명 사진작가 낸 글던이 2위에 올랐다.

/김미은 기자 mekim@

‘삶을 위한 예술하기’ 전문가 특강

18일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삶과 예술, 치유를 주제로 하는 전문가 특강이 열린다.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원장 이무용)은 18일 오후 7시 전남대 용지관 412호 강의실에서 문화치유 전문가 특강을 연다.

이번 특강은 모미나 통합예술교육연구소 포이에시스 대표가 강사로 나서며 주제는 ‘삶을 위한 예술하기 - 통합적 표현예술교육과 예술치료’.

/박성천 기자 skypark@

스위스 유러피언 대학원 대학교 겸 임교수인 모 대표는 국제공인 표현예술치료사, 비폭력대화 트레이너, 플래시백 씨어터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으며 통합표현예술치료 분야 전문가다. 이번 특강은 문화전문대학원의 혁신사업 중 하나인 ‘문화치유(예술+공간+자연+음식 치유)’ 교과목 개발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작은만큼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어려운~ 부자되세요!

061-337-8244, 010-3626-9040

<p>OK 당구장</p> <p>동구 대인동 220 대인농협옆 (가오무대 지하) 포켓대 당구대설치, 최신시설완비 냉·난방 완비 친절, 신용 분위</p> <p>☎ 010-8005-0188</p>	<p>완도전북</p> <p>나주시 나주로 131 (나주신협옆) 산지 직송 도소매 전국택배가능</p> <p>☎010-2831-9257</p>	<p>태극익스프레스</p> <p>동구 계림동 519-36(구.계림시장동) 포장이사, 일반이사, 피아노 인부대기 각종 화물 바구니 무료 친절, 신용, 분위</p> <p>☎062)222-2424, 011-664-2202</p>	<p>명품구두수선전문점</p> <p>서구 치평동 세정아울렛점동 동양빌딩앞 명품가방수선 골프가방수선 등산화수선 전문점</p> <p>☎ 010-2087-3592</p>	<p>현대 목공예사</p> <p>북구 신안동 239-2 (전대정문사거리) 목공예, 서각현판, 각종 원목침대, 서예부품</p> <p>☎062)523-0408, 010-2631-0408</p>	<p>동양철학원</p> <p>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공합 택일, 개인지도 함.</p> <p>☎062)224-7687, 010-2611-7687</p>
<p>(주)로만손시계 (주)오리엔트시계</p> <p>동구 호남동 13-3 금. 은. 고급시계 상담대환영!! 광주, 전남 대리점 A/S센터</p> <p>☎062)232-0038, 010-2290-0038</p>	<p>진주공방</p> <p>동구 지산동 동구국민체육센터앞 가족공예 수업 및 주문제작 원데이클래스 학교수업 단체수업 가족소품만들기</p> <p>☎ 010-3906-1718</p>	<p>으뜸공인중개사</p> <p>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p> <p>☎062)263-5383, 010-6338-5383</p>	<p>양지공인중개사</p> <p>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권리분석</p> <p>대표 정민각 ☎ 062)263-2223</p>	<p>기담철학원</p> <p>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옆 (우산그린공원 옆) 사주(음권·양권)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개인·단체 환영</p> <p>☎062)432-1324</p>	<p>광주갤러리경매장</p> <p>동구 대인동 동부소방서후문앞 참총은빌 1층 수석, 동양화, 서양화, 민속품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2시부터</p> <p>☎ 010-6778-9330</p>
<p>초대화랑</p> <p>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공동 54-2)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p> <p>대표 임환택 ☎062)222-2516</p>	<p>박당화랑</p> <p>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p> <p>대표 박환승 ☎062)222-6866</p>	<p>석당화랑</p> <p>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p> <p>대표 이석재 ☎062)222-3118</p>	<p>고전방</p> <p>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p> <p>대표 김화중 ☎062)224-4869</p>	<p>청학철학원</p> <p>북구우치로 39-1 (중흥신협옆2층) 작명·사주·운세·공합·택일 시험·승진·사업·재물·직업 부부교섭 및 전문 연구원</p> <p>청학 서광호 ☎010-9866-2332</p>	<p>청강창호</p> <p>북구 청계로 67(용봉동) 현대하이사시 + 피엔에고사시 제작설치전문</p> <p>☎062)528-7711, 010-3612-9794</p>
<p>신신예술의집</p> <p>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p> <p>대표 서태석 ☎062)222-1936</p>	<p>국수나무용봉점</p> <p>북구 용봉동 1091-4번지(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p> <p>☎062)526-5475, 010-8621-5959</p>	<p>클로버부동산</p> <p>북구 필문대로11번길 6 (용봉동) 모든 부동산 사고 팝니다. 임야, 전답, 토지, 상가건물 재건축·재개발 매매·임대</p> <p>☎ 010-5707-6676</p>			